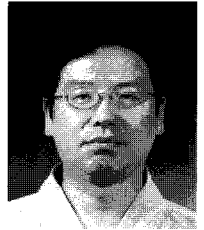


귀농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



성여경 사무처장
(사)전국귀농운동본부)

1. 귀농교육의 의의와 현황

지금 우리의 농촌은 황폐화되고 농업은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 공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고도 경제성장 정책의 맹목적 추구에서 비롯된 이 같은 농촌·농업의 위기는 이제 WTO 체제 아래서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절박한 한계상황 속에 놓여 있다.

농업은 민족생존의 산업이요, 농촌은 민족 뿌리이며 민족 문화의 터전이다. 건강한 농촌·농업의 활성화 없이 건강한 민족의 생존도, 민족문화의 창달도 없다.

해마다 40만 명이 넘는 농민들, 특히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농촌, 그 고향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노인들과 부녀자들 뿐, 농촌을 이끌어 갈 젊음의 힘, 그 활기참이 없다. 젊은이들이 없는 농촌은 내일이 없다. 농촌의 내일이 없음은 곧 이 나라와 이 겨레의 내일이 없음이다.

산업화 도시화의 반자연, 반생명의 메마른 문명 속에서 생기를 잃고 시들어 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살아 있는 흙의 소중함, 밥의 소중함, 자연과 생명가치의 소중함을 맛보게 하고 치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해 줄 겨레의 고향, 생명의 터전인 농촌을 우리는 잃어가고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농촌을 살려내어야 한다. 우리의 밥상인 농촌, 우리의 환경생태계를 지탱해 주는 농촌, 우리의 정서를 포근히

보듬어 주는 농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생명을 움티우는 생존의 보금자리인 농촌을 살려내어야 한다. 농촌을 살려야 우리가 산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이다.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젊은이들의 힘과 사랑과 열정을 고향은, 농촌은 목메게 부르고 있다. 단지 순간적인 편리와 쓰고 버려야 할 물질적 풍요로움을 위해서 반생명적이고 반자연적인 산업문명체계와 기업의 부속물로 우리의 젊음을 저당 잡히기에는 우리의 꿈과 내일의 희망이 너무 소중하다.

이제 우리의 땅, 우리의 농촌, 우리의 고향이 더 이상 버림받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농업이 한낱 돈 놀이의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일꾼인 농민이 더 이상 이 시대의 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이제 흙으로, 고향으로, 농촌으로 돌아가자. 가서 땅을 갈고 거름을 내어 씨를 뿌리자. 흙을 살리고 개울을 살리며 풀벌레와 어울리는 유기순환적 생태질서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생산하고, 도시 소비자와 함께 손잡고 얼굴을 맞대는 도농의 연대 속에서 새로운 대안 문명을 창조해 나가자. 반생명적이고 대립 경쟁적인 도시산업문명의 유일한 대안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조화하는 유기순환적인 농적(農的)문명이다. 순환공생의 농적

문명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의 아이들과 겨레와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길이다.

텃밭 마을, 노인들의 바른 기침소리만 적막한 고향땅에 돌아가자. 가서 부서진 삼짍문을 고쳐 달고 골목길에 우리 아이들의 방울 웃음소리 가득하게 하자. 가자. 가자.

등지 하나씩을 틀자. 농촌이, 들판이, 세상이 푸르게 다시 살아나는 보금자리를 만들자.

농촌에 신바람을, 새로운 활력을 불어 일으키자. 흙속에서 잃었던 생기를 되찾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자. 우리의 농촌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서울귀농교육 현황 및 누계

년도	기수	인원 총계	교육 형태
1996년	1기	25명	강의·현장실습
1997년	2기	39명	강의·현장실습
	3기	40명	4박 5일 숙박
	4기	39명	강의·현장실습
1998년	5기	79명	강의·현장실습
	6기	83명	4박 5일 숙박
	7기	45명	강의·현장실습
1999년	8기	75명	강의·현장실습
	9기	50명	강의·현장실습
	10기	56명	4박 5일 숙박
2000년	11기	52명	강의·현장실습
	12기	52명	강의·현장실습
	13기	45명	강의·현장실습
	14기	60명	4박 5일 숙박
2001년	15기	45명	강의·현장실습
	16기	56명	강의·현장실습
	17기	39명	강의·현장실습
	18기	52명	4박 5일 숙박
2002년	19기	46명	강의·현장실습
	20기	55명	강의·현장실습
	21기	30명	강의·현장실습·워크샵
	22기	55명	4박 5일 숙박
2003년	23기	39명	강의·현장실습·워크샵
	24기	52명	강의·현장실습·워크샵
	25기	40명	강의·현장실습·워크샵
	26기	48명	4박 5일 숙박
2004	27기	62명	강의·현장실습·워크샵
	28기	43명	강의·현장실습·워크샵
	29기	56명	강의·현장실습·워크샵
	30기	48명	4박 5일 숙박
누계	31기	62명	현재진행중
	2004년 현재	1,568명	

사람과 사람이, 도시와 농촌이,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울리는 공생의 대동 세상, 생기와 신명이 넘치는 우리의 농촌, 그 생태적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귀농교육을 시작한지 이제 8년.

지난 8년간 귀농운동의 근간은 교육 중심이었다. 농촌으로 돌아가 영농의 주체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절실하였고 효과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귀농운동 본부에서 개최한 교육의 종류로는 귀농학교, 살림강좌, 현장학습, 전문강좌, 생태농활, 귀농학교 수료자 재교육 강좌, 귀농자 교육 강좌, 그리고 13곳의 지역 귀농학교 교육과 실상사 귀농 전문학교 교육이 있다.

이 외에 지역 귀농학교의 수료자 수를 보면

지역	경남	광주	부산	인천	전주	대구	장성
수료 인원	220	173	223	62	258	89	71
지역	대전	청주	포항	울산	김리교	불교	계
수료 인원	65	52	68	127	113	381	1,902

위와 같고, 또 3개월씩 합숙을 하며 교육을 받는 귀농 전문학교의 수료자는 21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전국에서 귀농학교 과정을 수료한 인원수가 지금까지 총 3,680 명에 이르고 이것은 연간 460명이 8년간 귀농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명기한 인원은 귀농학교 프로그램인 14강좌 이상의 교육 이수자만 집계한 것이므로 여기에 집계하지 않은 살림강좌, 전문강좌, 현장학습등 2박 3일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까지 더하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하게 된다.

2. 교육의 효과

귀농운동본부의 창립 당시보다 IMF를 겪으며 사회화

된 '귀농'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다. 도시에서의 삶이 각박해질수록 농촌으로의 회귀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인 듯 하다. 그러나 갑자기 IMF를 겪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농촌으로 갔던 사람들의 탈농이 약 90%(정확한 통계는 아님, 2002, 동아일보 보도)에 달한다고 보면 도시민이 농촌에서의 정착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전 귀농교육을 받고 귀농을 한 사람들의 탈농 비율은 15%이내(정확한 통계는 아님, 8년간 본부추산) 이므로 귀농교육의 효과가 단적으로 들어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귀농교육의 프로그램 대부분은 자립적 삶과 생태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교육·의료의 다섯 가지 항목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 즉 이 기본을 어떻게 하면 생태적으로 조화롭게 자립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자리인 것이다. 장소적 제한으로 이론적 강의를 위주로 하게 되어 현장 실습의 교육기회가 적은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몇 번의 현장실습보다 좀 더 깊게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왔다. 귀농교육은 받았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귀농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귀농은 어려우나 생태적 가치 그리고 환경 등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강의를 듣고 함께 공감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귀농교육의 부수적인 효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좀 더 실질적이고 생활에 바로 응용하여 쓸 수 있는 강좌로 살림강좌가 있고 또 농촌에서의 소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전문강좌 등도 개설하여, 우리의 전통도 살리고 자립적인 삶으로 한발 나아가며, 실습이 부족한 교육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설한 위의 두 강좌도 약 60여회를 진행하여 많은 분들에게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귀농학교의 프로그램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교육적 목적과 가치창조에는 그 본분을 다하였고 이런 결과가 농림부 지정 농업인 교육 기관 중 2001,

생태귀농학교 강의 일정

순서	날짜	요일	강의명	강사	
1	9/14	화	지금 왜 귀농 하는가?	이병철	전국귀농운동본부장
2	9/16	목	생태위기의 극복	김정옥	서울대 교수
3	9/21	화	공생의 경제 살림의 경제	강수돌	고려대 교수
4	9/23	목	흙을 살리는 길	이태근	흙살림 대표
5	10/5	화	자립하는 복합영농	김준권	농부(양주)
6	10/7	목	심은 대로 거두는 밭농사	안철환	농부(안산)
7	10/9~	토	현장실습1 -귀농선배와의 만남 오리농법과 마을 만들기	홍성	홍성환경농업관 (숙소)
8	10/10	일		주형로	농부(홍성)
9	10/12	화	일과 놀이가 하나 되는 농사	전희식	농부(완주)
10	10/14	목	스스로 자라는 아이들	양희창	간디학교 교장
11	10/19	화	생태적인 주거문화	이태구	세명대 교수
12	10/21	목	돌파리의 시골이야기	임락경	농부(화천)
13	10/26	화	농가의 살림살이	정현숙	농부(정읍)
14	10/28	목	귀농 길라잡이	성여경	본부 사무처장
15	10/30~	토	현장실습2	강화	강화환경농업관
16	10/31	일		김정택	숙소
17	11/2	화	밥상을 살리는 농도 공동체	이상국	한살림 전무
18	11/4	목	생태마을과 공동체적 영성	황대권	생태공동체 운동센터 대표
19	11/9	화	성공하는 귀농 - 워크샵	안병덕	농부(벽제)
20	11/11	목	귀농을 꿈꾸는 이들에게 /수로식	홍순명	풀무원경농업전공과정 교장

2002년 연속 최상위의 평가를 받아냈던 것이다.

3. 귀농교육의 발전방향

지금까지의 교육이 귀농을 원하는 개인을 위한 철학적 이념의 확립에 있었다면 앞으로의 귀농교육은 그 철학적 바탕 위에 현실적 기술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이다.

즉 이론적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인 귀농에 도움이 되도록 귀농 실습지의 확보와 선도 농가의 확충이 필요하며, 또 귀농교육이 표방하고있는 유기적이고 순환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의 교육도 앞으로 하여야 할 과제이다.

귀농교육을 받고 귀농한 개인이 그 마을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교육이 한 발 더 나아가 마을을 살려내고 농촌을 살려내는 거대 프로젝트의 교육에도 참여 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농촌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지속적인 도농교류 역시 귀농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과제로 남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농촌의 문제는 농촌 홀로의 문제가 아닌 도시와 농촌이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더욱 절실한 때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